

빅데이터·AI 등 첨단학과 신설 ... SW특성화 성큼 내딛다



문제해결능력 전인적 소양경비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최근 중장기 발전계획인 'SU-Glory 2030'을 선포하고, '휴먼-ICT융합'과 '바이오-에코융합'을 양대 특성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중 휴먼-ICT 융합 특성화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중심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삼육대는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데이터클라우드산업 성장 선도 위한 탄탄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과 전인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

1·2학년 과정은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융합학부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이론과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배운다. 3·4학년 과정은 여기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화된 '데이터공학트랙', '클라우드컴퓨팅트랙'이 보강된다. 현업 실무전공심화 과목중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4학년 과정 캡스톤디자인 및 인턴십 교과목을 더욱 강화했다.

인공지능융합학부, AI-반도체-경영정보 트랙 운영

지난 2021년에 100명 정원 인공지능융합학부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중심 공학적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세부전공은 인공지능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지능형반도체 등 세 트랙을 운영한다. '인공지능공학'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및 IT 전문 인재를, '경영정보시스템'은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영·IT 코디네이터, 전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를, '지능형반도체'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갈 반도체 공정·설계·분석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SW중심대학사업, SW건강과학 특성화연계전공 운영

삼육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특성화트랙 국고사업인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됐다. 대학교육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해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최대 6년(4+2년)간 총 60억원에 달한다. 삼육대 사업비전인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SW건강과학 융합인재 양성'이다. 삼육대는 건강과학 특성화분야에서 100년이상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삼육대는 SW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SW건강과학특화 연계전공 3개 과정을 신설했다. △SW중독심리 △SW중독재활 △SW보건의빅데이터 등이다. SW중심학과인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 외에도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 등 건강과학특성과 학과융합과정이다. 모든 연계전공과정은 삼육대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반도체전공트랙사업...시스템 반도체 핵심인재 양성

삼육대는 또한 반도체전공트랙사업에 선정한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삼육대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반도체 소자, 공정 학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출신 교수진이 주축이 돼 반도체 8대 공정, 소자 특성, 측정 등 교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화학생명과학과에 반도체 기기분석, 인공지능융합학부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초 과정을 개설한다. 또 컨소시엄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과목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현장실습 등 기업연계 과정을 강화한다.

삼육대는 이처럼 반도체 공정 및 실습과 관련한 실무중심교육 재편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삼육대는 올해 사업비로 10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연간사업비 3억원에서 3배 이상 대폭 증액됐다. 1차년도 사업연차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8대 공정중심 연구센터 구축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이크로 전공제 도입...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 신설

삼육대는 전공문턱을 낮춰 재학생 융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크로 전공제를 도입했다. 데이터사이언스, 반도체를 비롯해 총 8개 과정을 개설했다. 마이크로전공은 주전공 외에 여러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최소단위(micro)학점으로 설계하고 개발된 전공과정이다. 각 전공별 교과과정에서 12학점(4과목)이상 이수하면 마이크로전공인증을 수여하고, 인증취득이 성적증명서에 기재된다.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비전공자 학생을 위해 별도로 개발된 맞춤형 강의로 제공한다.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경우,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등 다양한 다중전공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마이크로전공 이수자가 동일 다중전공으로 진입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전과자율제'도 주목할만하다. 삼육대는 2~4학년 졸업전까지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희망학과(부) 모집정원 100%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다.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제외) 입학시 점수에 맞춰 학과를 선택했다더라 입학후 적성·진로에 따라 새로운 학과·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하다.

가장 많은 장학금 대학...4년 연속 '서울권 1위'

삼육대는 서울소재 대학중 학생 1인당 최대 장학금 대학이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서 삼육대 2022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416만2262원이다. 재학생 5천명 이상 서울권 일반대학(국립대·사립대 포함)중에서 최다 금액이다. 전국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358.3만원보다 약 58만원가량 많다. 삼육대 2022년 연평균 등록금이 776만9399원인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삼육대 대표장학제도는 'MVP 장학금(마일리지 장학금)'이 꼽힌다. △Mission(인성·교양교육) △Vision(국제화·자격증·전공) △Passion(봉사)등 3개 영역활동 및 경력을 인증하고, MVP등급기준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한 해에만 이 장학금으로 1억 2561만원 지급됐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과 학업장려 위한 '특별학업장려장학금'으로 4억 4000만원, 외국인인지원 장학금은 2억 5360만원 지원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삼육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SW중심대학사업 등 대형 국고사업에 선정됐으며, 특히 SW중심대학사업 통해 SW관련 전공자 장학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기부금 확충으로 장학기금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동문선배 출연 '학과 밀알장학금', 교수·직원회 후원하는 '제자사랑 장학금', '직원회 장학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삼육사랑삼 장학금', 대학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도르카 장학금'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78여종 장학제도가 있다.



2024년도 삼육대 정시모집 안내

INTERVIEW | 김영희 입학처장

"414명 선발... 수능 4과목 높은순 '40-30-20-10%' 반영"

삼육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총 414명 선발한다. 수시모집 미등록인원 발생시 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 예·체능계열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수능 100%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다. 문·이과 구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수능성적은 일반학과(약학과, 예체능계열 제외)기준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 반영한다. 점수 높은 순으로 각각 40%, 30%, 20%, 1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지원시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총점에 5% 가산해준다. 영어는 분교기준 환산등급표에 따라 1등급 98점부터 9등급 0점(8등급 40점)까지 차등적용한다.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모두 인정한다. 1과목은 한국사로 대체가능하다.



(다군) 등 예체능계열은 실기성적도 반영한다. 체육학과는 수능 60%·실기 40%,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수능 51%·실기 49%를 합산해 선발한다. 음악학과는 실기위주 전형으로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의 수능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을 50%씩 반영한다. 다만 탐구는 체육학과

의 경우 2과목 평균을,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1과목만 반영한다. 세 학과 모두 직업탐구도 인정한다. 1과목은 한국사로 대체가능하다. 또한 체육학과는 수능 백분위를 반영하지만,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등급 따른 자체환산점수 적용을 유의해야 한다.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수능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급간 점수차가 2~4점에 불과해 실기고사로 당락이 갈릴 전망이다. 원서접수 가·나·다군 모두 1월 3일 오전 10시~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학여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접수한다. 서류제출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1월 8일 오후 5시까지(우체국 소인인정).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다.

- 2024학년도 정시모집요강: http://ipsi.syu.ac.kr/2016_syu/pages/index.asp?p=12&mf=02
-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si.syu.ac.kr/>
- 입학상담 및 문의: 02-3399-3377

약학과는 지난해 다군 모집에서 올해 나군 모집으로 변경된다.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8명 늘어난 22명(일반전형 2명, 농어촌 2명)이다.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2과목 평균) 20%를 반영한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학 미적분·기하 선택시 취득점수 5%를 가산하고, 과학탐구(2과목) 선 시 3% 더해준다.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사 탐구 대체도 불가능하다.

체육학과(가군), 아트앤디자인학과(가군), 음악학과

미래를 먼저 만날 SU 있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 SW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삼육대학교에서 먼저 만날 SU 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모집 가, 나, 다군 원서접수

원서접수처 : 진학사(www.jinhakapply.com)
원서접수일 : 2024년 1월 3일(수)~1월 6일(토)
접수문의처 : 입학처 전화 (02)3399-3377~3379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http://ipsi.syu.ac.kr>)를 참고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